

대학도서관발전의 계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¹⁾

김 정 근

<부산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차 례

- I. 대학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이란 무엇인가?
- II. 대학도서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부산대학의 최근 2년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 1. 부산대 도서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 법적 제도적 지원
 - 나. 행정적 지원
 - 다. 이용자 그룹의 여론적 지원
 - (1) 교수진의 관심
 - (2) 대학원 학생들의 관심
 - (3) 학부학생들의 관심
 - 2. 영향의 요인들은 부산대 도서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III. 결론에 대신하여
 - I. 대학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대학도서관은 대학과정(University Process) 즉 연구, 교수-학습, 사회에 봉사과정²⁾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내의 지원시설이다. 여기서

1) 이 논문은 필자가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발전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세미나(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1989. 6. 28)에서 “대학도서관발전을 위한 방안”이란 제목으로 구두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날의 대학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위하여 채택된 네 분야의 주제 가운데 “대학도서관발전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것은 대학인들의 대학본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였다는 점에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이런 모임에서는 주로 학생지도와 관련된 테마들이 채택되는 일이 많았다. 다음으로, 그것은 대학인들의 도서관학의 역할에 대한 발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였다는 점에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대학도서관에 관한 논의는 비전문가들끼리 ‘상식적으로’ 하는 일이 많았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논의가 대학교수들이 다수 참여하는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2) 대학의 전체과정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에 대한 집약적인 표현은 교육법과 대학의 학칙가운데 교육목표를 규정하는 항목에서 통상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교육법 제108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대학교 학칙의 제1조 2(교육목표)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진리, 자유, 봉사의 정신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 및 인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위의 두 진술은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최근에 부산대학교의 교육목표에 관한 매우 치밀한 연구보고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부산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부산: 부산대학교, 1989), pp. 25-88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부분은 이대규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적이란 표현은 대학도서관은 대학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의 대학이 목표로 하는 연구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의 세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질이 잘되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학술정보 시스템, 학습정보 시스템이 대학의 한가운데에 존재할 것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 지식생산활동의 조야성, 교수-학습 방법의 원시성에 대한 지적은 멀리 살펴 필요 없이 80년대 후반 대학가에서 일고 있는 학생들의 프로테스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들은 연구자들이 생산해 내는 지식의 권위, 신빙성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클라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학생들의 지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연구자들의 마음속에 자의식의 형태로 늘 존재해 온 문제영역이다. 조금도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자문해 왔다: 나는 도대체 번지가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가? 강의 중심, 단일교과서 중심의 클라스 운영은 타당한가?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의 지식생산활동의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 소피스티케이션의 불철저성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하나의 토론 주제를 구성한

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 거대한 문제의 근본을 이룬다고 믿어지는 학술자료 시스템 미개발의 문제, 즉 대학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주로 개인장서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정, 이 사정이 배태할 수 밖에 없는 생산품 자체의 불량성 문제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써 만족하려고 한다. 과연 학술자료시스템의 지원없이 개인장서 중심의 연구구조 속에서 권위있는 지식이 생산될 수 있겠는가?³⁾

교수-학습의 방법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그 자체로서 또 다른 하나의 거대한 토론의 주제가 된다. 다만, 지금은 대 부분의 경우 단일 교과서와 교수의 입김에 의존되어 있는 이 평면적이며 지루하기 그지없는 교실 운영방법, 학생들이 그와 같은 방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테스트하는 “무엇무엇에 관하여 논하라”식의 중간시험, 기말시험의 출제방법. 이 방법들이 낳는 반교육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써 그치려고 한다. 동시에, 이 전통적인 교실 운영방법의 정태성, 안이성을 깨고, 클라스의 성원 모두가 주체로서 움직이며 참여하는 새로운 교실 운영방법을 도출해 내는데 학습자료시스템으로서의 대학도서관이 하나의 필수조건임을 말하는 것으로써 만족하려고 한다.⁴⁾

3) 연구방법에 관한 탁월한 저술로 Jacques Barzun and Henry F. Graff, *The Modern Researcher*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57; First Harbinger Book edition, 1962; Revised edition, 1970)가 있다. 필자는 지금 First Harbinger Book edition 1962년판을 사용하고 있다. 1970년 개정판은 아직 구해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인 컬럼비아대학의 사학자들은 자신들의 논의 전체를 자료센터로서의 도서관을 전제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제4장 전부(pp. 61-87)가 도서관과 자료의 활용법을 설명하는 데 바쳐져 있기도 하다. 이 책속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전형적으로 연구지원시설로서의 도서관을 전제로 쓰여진 것이다.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개발된 책자료, 연속간행물자료, 그밖의 여러가지 비인쇄자료, 참고자료, 색인초록자료를 포함하는 서지도구자료 등으로 구성된 학술정보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The “block of material” in research is the huge mass of books bearing on the innumerable topics and subtopics within the subject. The obvious first step in carving out the substance of your report is to find out whether someone has already dealt with your subject in print—in an article, it may be, or in a book. At this late date in the world’s history very few subjects of research can be entirely original. Even the newest experiment in science has been led up to, and the report on the new work usually gives a bibliography, which is but a record of previous findings.

The record of earlier work in any field—known as its “literature”—is accessible in many ways, of which more will be said in Chapter 4. The fact to note here is that, barring exceptional cases, leads to your material exist, probably in abundance. Discovering them is a question of skill and patience—of technique. (pp. 22-23)

4) 한국의 대학에 있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교실은 “강의실”로 출발하였다. 교실은 강의를 위한 장소였다. 강의

대학도서관은 대학전체과정의 한 통합된 지원시설이다. 이 시설의 가능성을 모두 구체화 시킴으로써, 그 이름속에 들어 있는 실체를 현실속에 끌어냄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실, 교수와 학생이 만나는 교실이 그 정체성, 평면성을 극복하고 신바람이 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하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진리속에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해방공간이 되는 데 대학도서관은 하나의 변수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⁵⁾

II. 대학도서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부산대학의 최근 2년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은 그 짧지 않은 역사에 비하여 몇몇 예외의 경우를 빼고나면 아직 대단히

낙후한 단계에 놓여 있다. 지방의 대학도서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자료센터라기 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거대한 독서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의 문제가 등장한다. 발전의 계기가 잡혀져야 한다. 이제 대학도서관은 운영주체와 고객의 협조밑에서 의도적 계획적으로 대학의 한 통합된 부분으로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대학건설의 한 필수요건이 아니가 한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양질의 서비스가 먼저 있을 때 고객이 나중 생기는 측면과 고객의 필요와 요구가 먼저 있을 때 양질의 서비스가 따라 자라는 실제하는 두 측면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가 적으므로 있는 고객마저 좌절을 겪게 되며 고객의 요구가

실에는 일정한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다.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하자면 거기에는 많이 알며 좋은 것을 알고 있는 교수가 있고, 많이 모르며 알기도 틀린 것 나쁜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있었다. 이 양자 사이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은 대체로 교수에게서 학생에게로 일방적이었다. 이때 정보의 발신자인 교수는 자신의 입심과 백묵, 칠판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수신자인 학생은 노트 위에도 메시지를 받아 적는 것만이 잘하는 일이었다. 정보가 학생에게서 교수 방향으로 역으로 흐르는 일은 드물었으며 학생들속에서 교호적으로 흐르는 일은 더욱 드물었다.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본다면 우리나라 대학강의실의 구조는 지금도 이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변화라면 단수의 교과서, 아주 드문 경우 복수의 교과서가 강의실 속에 도입되어 있다는 정도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교실의 구조를 전통적, 평면적, 정태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다음 두 가지의 근거에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전통적 교실은 지루하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루하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둘째, 전통적 교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절대량이 크지 못하다. 교실 속에 정보가 결핍되었을 때 교육은 낙후할 수 밖에 없다.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교실과정(Classroom Process)의 해방을 생각함에 있어서 필자에게 시사를 준 책으로서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trans. Myra Bergman Ramos(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0); 이신행 편, 「討論없는 시대의 討論」(서울: 전예원, 1986).

- 5) 이 논문은 대학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사항이 이미 너무도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 대학사회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처럼 이 논문 속에서는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 전제 밑에서 대학도서관의 발전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편의에 따라, 또한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치러낼 수 없다는 사정론에 따라, 일을 이와 같이 진행시키고는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 전제, 즉 우리나라 대학의 내외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전제, 적어도 그 중요성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된 적은 있다고 하는 이 전제가 과연 튼튼한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의미에 관한한 아직도 더 좋은 설명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대학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이란 무엇인가?”는 필자가 다음 기회에 따로 별도의 논문에서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보직한 테마가 아닌가 한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 관계의 기본서 몇 타이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2nd ed.(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James Thompson,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3rd ed.(London:Clive Bingley, 1979);모리스 A. 겔펀드, 「大學圖書館」, 이병목 역(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이 책은 원래 Morris 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Unesco, 1968)로 출판된 것이다;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4th ed.(New York: H.W. Wilson, 1974).

전체적으로 저조하므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온 한 예가 87년 이래 지금까지 약 2년간에 걸쳐 부산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진전이 아닌가 한다. 아래에서는 부산대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이 지금의 단계에서 어떻게 발전의 계기를 잡아가며 그런 과정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확인해 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부산대 도서관의 경우를 사례로서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더 좋은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 도서관을 사례로 삼는 데는 필자가 부산대 도서관(만)을 잘 안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관찰에 대한 보고일 뿐이다. 결코 특정도서관의 현시작업이 아니다. 독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1. 부산대 도서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어떤 것이 있는가?

가. 법적 제도적 지원

(부산) 대학도서관 발전에 제도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법령,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도서관법(87년 11월 28일 공포, 법률 제 3972호)

도서관법 시행령(88년 8월 16일 공포, 대통령령 제 12506호)

국립학교 설치령(1977년 8월 30일 공포, 대통령령 제 8672호 전문개정; 개정 1989년 3월 6일공포, 대통령령 제 12638호)

대학설치 기준령(1970년 1월 9일 공포, 대통령령 제 4511호; 개정 1988년 7월 27일 공포, 대통령령 제 12497호)

한국 도서관 기준(한국도서관협회, 1981)

도서관법은 대학도서관에 관한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무의 테두리를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제4장 제32조, 제33조, 제34조)⁶⁾ 같은 법의 시행령 역시 대학도서관에 관한한 대단히 미온적이다. 시설과 자료에 관해서는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서직원의 배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별표1, 별표2, 별표3)⁷⁾ 국립학교설치령 중 대학도서관 관련 조문은 대학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의 의무화를 일단 반

6) 도서관법 중 대학도서관 관련 조문

(87년 11월 28일 공포, 법률 제 3972호)

第4章 大學圖書館

第32條(設置)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 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33條(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효율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圖書館利用의 體系的 指導
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情報網을 통한 情報資料의 流通
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第34條(指導·監督)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7) 도서관법시행령 중 대학도서관 관련 조문

(88년 8월 16일 공포, 대통령령 제 12506호)

[별표 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제3조 관련)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계·전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복하고 있으며,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라고 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도서관에 수서

과, 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5급인 사서관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3과의 사무분장을 명시하고

[별표 2]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제4조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자 격	자 격 요 건
1 급 정 사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 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급 정 사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 사 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표에 의한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있기도 하다. (제13조) 대학도서관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표를 형성시켜 주고 있다.⁸⁾

대학설치기준령에도 도서관 의무조항이 반복되고 있다. 이 법령에는 대학도서관에 참고도서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열람실에는 총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갖추

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이상을 추가한 도서를 갖출 것과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갖출것이 규정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조직이 담아내어야할 최소한의 내용물이 규정되어 있다.⁹⁾

8) 국립학교 설치령 중 대학도서관 관련 조문

(1977년 8월 30일 공포, 대통령령 제8672호 전문개정 ; 개정 1989년 3월6일 공포, 대통령령 제12638호)

제11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② ...

③ ...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5급인 사서관으로 보한다.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처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및 보관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관리

9) 대학설치기준령 중 대학도서관 관련 조문

(1970년 1월 9일 공포, 대통령령 제4511호 ; 개정 1988년 7월27일 공포, 대통령령 제12497호)

제12조(도서관 등) ①대학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

2. 열람실에서는 총학생정원의 20퍼센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3. 총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이상을 추가한 도서

4.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

위에서 그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에 관련되는 법률, 법령은 대학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골격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상의 어떤 살아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학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 기준은 예외적으로 기존의 도서관과 신설의 도서관이 따라 갈만한 기준들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기준은 법률이나 법령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전문직 단체가 회원기관에 보내는 권고의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¹⁰⁾

따라서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있는 제도적 측면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 행정적 지원

(부산)대학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문교부로 부터의 그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문교부가 대학도서관발전을 위하여 보내는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교부는 대학교무처사무의 일부분으로 대학도서관통계를 일년에 한번씩 받아가는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문교부직제 안에 위에서 본 미흡한 내용의 법률, 법령이나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도서관전담부서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일이 지금까지 매우 그르쳐져 온 데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기도 한다.¹¹⁾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의 발전은 미흡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지도 감독기관의 부재 속에서 결국 단위 대학과 단위 도서관의 책임과 이니셔티브에 맡겨져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부산대학의 실상이기도 하였다.¹²⁾

다. 이용자 그룹의 여론적 지원

한국의 대학 속의 한 전형적 장면으로서 무사하고 안일하며 퇴영적이기 조차하던 부산대도서관에 발전의 계기가 주어진 것은 이용자 그룹으로 부터였다.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1) 교수진의 관심

교수개인이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으로서의 불만을 표시하는 예는 흔하다. 때로는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 실망한 나머지 이에 도서관 출입을 앓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교수진이 그룹으로서 대학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부산대학교 교수평의회는 1988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체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학내의 제반 당면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도서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① 중앙도서관(각분관 포함)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②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③현재 도서관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점은 무엇인가? ④귀하가 추천한 도서(특히 외국도서)는 제대로 구입되고 있는가? ⑤도서구입예산의 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⑥각 전공계열별 분관(약 4-5개)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⑦도서관장은 도서관학과의 교수가 맡는 것이 좋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조사에 응답한 교수의 수는 전체 재직교수 699명 중 414명이었다. 교수평의회가 집계한 조사의 결과는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평의회측에 의하여 도서관측에 전달되었다. 당시 관장은 도서관 직원 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게 하였다. 이것이 도서관

10) "대학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1981), pp. 27-34를 참조할 것.

11) 문교부직제(전문개정 1986년 8월 25일 공포, 대통령령 제11959호)참조.

12) 대학도서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따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법률, 법령들이 비교적 최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여전히 시대에 뒤져있으며 고객의 현재적 요구와 잠재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필자는 받고 있다.

직원들의 심리에 가한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고 알려져있다. 시대착오와 낙후 속의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충격이 다른 요인과 더불어 나중에 말하게 될 도서관 내부의 반성과 자체적인 문제인식 작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원 학생들의 관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1988년 5월 25일 대자보와 대학원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의 형태로 도서관 문제를 거론하였다.

대학원당국은 학생들의 공개질의서를 도서관으로 보내왔으며, 대학원학생들은 직접 도서관과 협상하였다. 대학원학생들의 문서는 우선 도서관과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도서의 양과 질, 이용과 대출, 소위 급서의 활용 문제에 대하여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대학원 학생들의 문서의 전문은 자료2에 소개되어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대학원 학생들은 여러가지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냈다. 가령 당시까지 대학원생에게는 대출권수와 기간이 3책 이내 1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10책 이내 1개월로 조정된 것과 같은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거세어질 조짐이다. 89년 5월 대학당국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전환계획을 밝혔을 때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성명서(부대신문 89.5.29자)를 통하여 연구여건의 전면적 개선을 선행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역시 도서관도 이 요구 앞에서 무사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3) 학부학생들의 관심

부산대학교에서 일고 있는 고조에 의한 도서관 문제의 계기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학부학생들에 의한 것이었다.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도서관학과 학생회 3자가 연대하여 학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도서관 개혁운동」은 87년 9월부터 무려 3학기 동안이나 끝었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에 생산한 대자보만도 약 40편에 이른다. 이 40편 속에서 이들은 대학도서관의 건물시설, 직원, 자료, 서비스 시스템의 영역에 걸쳐 광범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학당국은 87년 10월 12일의 「총장 공고문」¹³⁾과 88년 11월 20일의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자료」¹⁴⁾로서 기민하고 성실하게 응수하였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¹⁵⁾를 출범시켜 도서관의 장기발전을 도모케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생산한 문서들과 대학당국이 생산한 답변자료들은 89년 들어와서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9-1988.12」¹⁶⁾의 형태로 공간되었다. 자료3에서 보는 것이 전형적인 학부학생들의 도서관개혁운동문서이다.

2. 영향의 요인들은 부산대 도서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위에서 보았듯이 대학도서관발전에 관련이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문교부 안에 대학도서관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행정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조건 밑에서 다른

13) “총장공고문, 87년 10월 12일”은 학생문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도서관학과 학생회와 대학당국간의 합의사항(안), 87년 9월 10일”에 대한 항목별 답변형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자료, 88년 11월 20일”(자료5 참조)은 학생문서 “학교당국은 하루 빨리 약속을 이행하라: 88년 1학기 도서관개혁운동을 마감하면서, 88년 6월 3일”과 “학교당국의 ‘답변’에 대한 우리의 입장, 88년 10월 25일”에 대한 항목별 답변형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18쪽에 달하는 문서이다.

15) 도서관발전위원회는 “평균수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대학당국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고사항, 1987년 9월 17일”(자료4 참조)과 「釜山大學校圖書館新築을 위한 基本計劃研究, 1988. 3.」(대표집필 최정대 교수)를 생산하였다. 1989년 중에는 신축도서관의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16)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9-1988.12」(1989)는 모두 132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집이다. 이 속에는 학생문서 36편, 총장공고문, 평균수로 구성된 도서관발전위원회 중재안, 대학당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답변자료, 개혁운동이 전개된 기간 동안의 운동일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학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부산대 도서관의 발전도 거의 전적으로 부산대학 구성원들의 결단과 노력에 맡겨져 왔던 것이다. 구원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손일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틀속에서 관찰할 때 87년 가을 학기이래 약 2년간에 걸쳐 부산대의 교수진, 대학원학생들, 학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도서관문제에 관한 일련의 충고, 프로테스트, 대자보활동은 대학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본부와 대학인 일반이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그리고 있던 정신적인 지도, 특별히 도서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인들 스스로가 대학도서관에 관하여 그리고 있던 정신적인 지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무사와 안일을 깨고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산대 도서관이 대학구성원 내부의 갈등과정을 거쳐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증거가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부산대도서관은 이용자 그룹이 가하는 충격속에서 그동안 대학본부의 지원을 받으며 내부정비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8년 12월과 89년 3월에 나온 두 문서에 의하면 부산대 도서관을 구성하는 10개의 실(예:수서실, 정기간행물실)은 모두 33개 영역의 당면과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학도서관의 본질구현에 날금과 씨금이 되는 핵심적인 영역들을 현장사서들이 자신들의 당면과제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 도서관인들이 스스로 확인한 문제의 영역들을 위의 문서들에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인사구조
- 예산구조
- 도서관 신축문제
- 주제담당사서제 도입과 수집업무의 효율화

- 선정도구자료 개발업무의 활성화
- 서지도구자료 개발업무의 활성화
- 기본장서 개발을 위한 연구
- 교양자료, 학생추천자료 선정기준 개발
- 마이크로 자료 개발
- 시청각자료 개발
- 대학 캐털로그자료 개발
- 정기간행물 수집업무 활성화
- 공산권과 제3세계관계자료 수집업무 활성화
- CD-ROM 개발연구
- 구입외국학술잡지 타이틀 타당성 조사
- 국내학회지 수집업무의 활성화
- 잡지자료 개발개념의 도입
- 색인 초록자료코너 설치운영
- 학술잡지소장 현황 종합점검 및 잡지결호조사
- 열람용 목록카드의 정비
- 고서목록 정비
- 인계방법 개선
- 조정반 또는 재정리반의 편성
- 장서 점검준비
- 자료실 연장개관
- 동양자료실의 개가운영
- 서양자료실의 개가준비
- 대출 반납업무의 전산화 계획
- 참고조사업무의 개선
- 논문자료 서비스의 개선
- Dialog-Dialcom 설치 운영
- 과학분관업무의 활성화
- 의학분관업무의 활성화

부산대 도서관은 89년 4월 「도서관소식」 창간호를 내놓았다. 이 소식지 속에는 위의 33개 문제영역 가운데 21개 영역이 현장사서들에 의하여 자세하게 검토분석하고 있다.¹⁸⁾

17) "88년도부터 추진 또는 계획중인 특별사업, 1988. 12. 1" 이 문서의 표지에는 "아래의 내용은 본 도서관이 88년도 3월 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서 도서위원회(88. 11. 15)와 도서관확대간부회의(88. 11. 29)에 소개된 바 있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다. 직원 홍보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소식발간을 위한 실행업무분담, 1989. 3" 이 문서 역시 사서들로 하여금 실행 당면과제를 확인시키고, 과제마다 개념을 세우고 실천정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힐 것을 안내하고 있다.

18) 「도서관소식」(창간호)(부산대학교 도서관, 1989. 4)은 흔히 보는 도서관소식지와는 다르다. 논단에 "대학도서관의 서지정보봉

그들은 그 내용과 그 규모면에서 너무도 거대한 문제들을 손에다 움켜 쥐고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 하나 하나에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트였을 때 그것은 이 나라의 전체 대학도서관 발전에도 큰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물론 부산대 도서관이 이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감당하는 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대학도서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들을 자성적으로, 자기고백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인 듯하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대학도서관 운동의 주체의 출현을 보게 되는 것인가? 의아심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보게 된다.

III. 결론에 대신하여

현단계에서 대학도서관이 변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변혁의 계기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앞의 장에서 시도한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최근 2년간의 경험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첫째,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시대에 맞게,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려면 높은 수준의 법률,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법과 동법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학설치기준령의 기준들이 획기적으로 높여져야 한다.

둘째, 문교부(또는 교육부) 안에 학술정보시스템, 학습정보시스템으로서의 대학도서관¹⁹⁾을 지도감독할 독립부서가 들어서야 한다. 법률 법령이 단위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책임부서의 설치가 요망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발전의 현단계에 있어서는(현단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용자그룹, 즉 교수진, 대학원생, 박사과정의 학생들, 학부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도움이 될 수 있다.²⁰⁾

넷째, 대학도서관발전의 궁극적 열쇠는 현장사서들의 손에 쥐여 있다. 법적 행정적 지원, 고객의 관심의 영향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높은 기술수준과 직업윤리수준을 갖춘 전문사서군이 등장하여 한국의 대학도서관운동을 주도하여 줄 것이 요망된다. 네번째의 해답을 해답 중의 해답으로 보고 싶다.²¹⁾

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를 신고, 창간특집으로 "본교 도서관의 당면과제와 개선방향"를 모두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풀어가고 있다. 모두 57쪽에 달한다.

19) 4년제 대학의 도서관과 2년제 대학의 도서관을 합하면 전국에는 모두 274개의 대학도서관이 있다. 엄청난 숫자다. 「한국도서관 통계, 1988」(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8), p. 22 참조.

20)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곳에서는 전공학생들에 의한 전문적 참여와 관심이 더욱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대의 경험 이외에 전남대(88.3.14-4.8), 경북대(88.5.9-6.7), 전북대(88.8.31-9.19)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1) 이 논문에서 필자는 몇가지 적시된 이유때문에 대학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역시 적시된 몇가지 요인 속에서 활성화의 계기를 잡아갈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구체적으로 부산대 도서관이 미시적으로 어떤 연관주조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미개발 또는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대학도서관에 관한 미개발 상태, 저개발 상태라는 시사가 누구에게나 열려 받아들여지는 명제라는 점을 빌미로, 또한 일을 한꺼번에 다 치를 수 없다는 이유도 곁들여 그 부분은 설명이 없이 일단 전제를 하고 건너 뛴 것이다. 이제 대학도서관 발전의 계기에 관한 이 논문이 불완전한 상태로나마 몇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됨에 즈음하여 필자는 이 논문속에서 일단 전제를 하고 건너 뛴 부분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를 느낀다.

필자가 후속연구를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몇가지 잠정적인 테마들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도서관운동에 있어서의 주체의 문제" 이 제목 밑에서는 지금 단계에서의 도서관장, 도서관 간부사서, 평사서를 포함하여 도서관 사람의 문제를 분석하고, 전망을 세워보려고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문제" 이 제목밑에서는 지금 단계에서의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의 의미를 밝히고 실천을 위한 전략을 구상해 보려고 한다. ③ "대학도서관 시설과 환경의 문제" 이 제목 밑에서는 연구와 독서라고 하는 숭고한 인간행위를 감안하면서 도서관 시설과 환경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자료 1> 교수진이 생산한 문서의 한 보기

**부산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조사한
대학도서관의 문제들**
(부산대 교수평의회보, 제2호, 1988.12.31)

1. 중앙도서관 이용정도			2.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3.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 도서관 문제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전혀하지 않는다		53 (12.8)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적어서		231 (55.8)	도서예산 확충		43 (10.4)
한학기 1-2번		226 (54.6)	멀어서		64 (15.5)	도서구입제도 개선		169 (40.8)
비교적 자주이용		127 (30.7)	자료 이용방법을 모르 거나 불편해서		11 (2.7)	도서자료전산화 타대학과의 자료교류		97 (23.4)
기 타		6 (1.4)	기 타		16 (3.9)	단체별 분관설치		57 (13.8)
무 응답		2 (0.5)	무 응답		92 (22.2)	전문사서 확보		26 (6.3)
			기 타			기 타		12 (2.9)
			무 응답			무 응답		10 (2.4)
계		414(100.0)	계		414(100.0)	계		414(100.0)

4. 추천도서의 구입현황			5. 도서구입 예산의 운용		6. 전공 계열별 분관 (약4-5개)설치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잘 구입 된다		42 (10.1)	현 체제가 좋다		25 (6.0)	반드시 필요		167 (40.3)
기간이 많이걸림		141 (34.1)	교수별, 학과별 예산 배정 증액		138 (33.3)	도서보관, 타과 자료 이용이 불편		81 (19.6)
구입되었는지의 결과 를 모름		201 (48.6)	학과에 일임 (공통구입 도서제외)		231 (55.8)	특수분야 도서만 분리		117 (28.3)
기 타		23 (5.6)	기 타		13 (3.1)	기 타		17 (4.1)
무 응답		7 (1.7)	무 응답		7 (1.7)	무 응답		32 (7.7)
계		414(100.0)	계		414(100.0)	계		414(100.0)

7. 도서관학과 교수의 도서관장 역임에 대한 의견		
응답	구분	전체빈도수 (%)
	옳지않다	77 (18.6)
	옳다	47 (11.4)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276 (66.7)
	기 타	11 (2.7)
	무 응 답	3 (0.7)
	계	414(100.0)

〈자료 2〉 대학원 학생들이 생산한 문서의 한 보기

대학원 학생회가 대학원 당국에 보낸 공개질의서 중 도서관 관련 부분

3. 학문연구를 위한 제반 여건

*도서관 및 자료 실태

대학이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전당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지 않는다면 학교 발전의 제 일차적인 지표는 무엇보다도 학문 연구를 위한 도서 및 제반 부대 조건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접근해 있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도서의 양과 질

현재 대학 도서관에는 35만 여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으로 대학원이 원하는 도서의 양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인원 확충등의 제정 투자를 통해서 신간 서적을 확보하여 대학원생들의 도서 구입에 관한 의견 창구를 단일화(예 : 각과 대표, 또는 학술 위원→학생회 학술부→도서관장; 대학원 학생 도서 추천카드 사용 가능 등) 위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 이용

현재 대학원생들의 대다수가 그 이용에 있어 소극

적이며 대단히 심각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원 열람실의 좌석 수 확충으로 올바른 연구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 도서 목록과 도서의 실제 보관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 각 대학의 논문 및 도서가 신속히 전달되며 그 홍보가 즉각적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복사기의 확대로 종일 도서관에 붙잡혀 있는 시간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도서 대출

대출 권수 및 기간 현재 석사 박사 3권 4주→ 석사 10권 20일, 박사 15권 25일

*금서 목록, 대출 제한의 폐지

현재 학교내 도서관 및 부설 연구소 소장 도서는 그 내용에 상관 없이 목록 공개는 물론 자유로운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출 절차에 있어서도 신원 확인을 통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석·박사 수료 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상의 도서관 문제에 관한 학교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실한 의견 요구.

1988년 5월 25일

대학원 학생회

<자료 3> 학부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 문서의 한 보기

학교당국은 하루 빨리 약속을 이행하라!

- 88년 1학기 '도서관 개혁운동'을 마감하면서 -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사회대 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서관학회는 지난 87년 2학기에 이어 이번 88년 1학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도서관 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부산대 도서관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과정에서 학교당국과 도서관 당사자들은 한번도 문제해결의 노력에 적극성을 보인 적이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태세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두 학기 동안의 '도서관 개혁운동'을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요구사항들을 재정리하여 대학당국에 제시하려고 한다. 이 요구사항들은 지난 87년 10월 12일자 총장 공고문에 나타난 약속사항들과 88년 봄 학기 동안에 우리들이 펼쳐 보인 총 18회의 대자보 활동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우리의 요구

A. 사람

1. 도서관장 문제 (대자보 88.5.26. ; 88.6.1. 참조)

현 도서관장은 우리들의 개혁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추진할 전문적 능력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현 관장이 도서관 현장을 지도,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직교수가 아닌 '도서관장'으로 채용된 전문직(도서관법 시행령상의 1급 정사서)으로 새관장을 임명하라. '국립학교 설치령' 제11조 4항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2. 부관장제 폐지 (대자보 88.5.26 ; 88.6.1. 참조)

우리는 우리의 '도서관 개혁운동' 정신에 위배되는 기만적 '부관장제'를 거부한다. 즉각 폐지하라.

3. 과장 교류 문제 (대자보 88.5.26. ; 88.6.1. 참조)

'과장교류문제'에 있어서 학교당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각 교체하라.

4. 평사서 자질 향상 문제 (대자보 88.5.26. ; 88.6.1. 참조)

89년 10월까지 임시직을 제외한 학사정사서 19명 이상(경북대 수준) 확보약속의 이행을 위한 남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라. 4년제 학사정사서 체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졸하고 궁색하게 연출되는 '숫자채우기 놀음'을 당장 중지하라.

5. 임시직 처리 문제 (대자보 87.9.7. 참조)

우리는 임시직 채용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청탁인사의 관행을 단호히 배격한다. 임시직들의 신분을 대학이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도서관 아닌 타 부서로 이동시켜라.

B. 건물, 시설

1. 도서관 신축 문제 (대자보 88.5.26. ; 88.6.1. 참조)

학교당국이 5월 31일 제시한 신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신축 사업 계획을 세우라. 학교당국은 구시대의 '규정'을 앞세우고 2만 효원인의 숨통을 틀어 막을 셈인가?

2. 휴게실 설치 문제 (대자보 88.3.14. ; 88.3.31. 참조)

기존의 1층 휴게실은 도서관 당국자들의 무지와 태만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3층과 4층에

따로 휴게실을 설치하라.

3. 부족 열람실 확보문제 (대자보 88.3.31. 참조)
절대 부족한 열람석의 확보 계획을 제시하라.
4. 서남쪽 출입구 앞의 화단 조성성 문제 (대자보 88.3.15. 참조)
서남쪽 출입구 앞의 화단 조성을 다시 하라.
모든 이용자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공중전화 설치 문제 (대자보 88.3.15. 참조)
전화 한 통화를 위해 4층에서 1층을 오가야 하는 고통을 계속 방치하고 있을 셈인가? 도대체 도서관 당사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각 층마다 2,3대의 공중전화를 즉각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돌보라.

C. 서비스 시스템

1. 양서 개가제 문제 (대자보 87.9.3. 참조)
동서는 개가하고도 양서는 왜 서고에 숨겨 두는가?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하는 피동적인 자세는 왜 버리지 못하는가? 양서도 전면 개가제로 바꾸라.
2. 개관, 대출시간 연장 문제 (대자보 88.9.7. 참조)
자료 대출시간을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하라. 도서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다른 대학들의 본을 따르라)
3. 도서관 전산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공개하라.

D. 자 료

1. 장서 개발 정책 문제 (대자보 88.3.16. ; 88.3.17. 참조)
양질의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라. 도서관 자료는 그저 마구잡이로 긁어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장서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지금의 수서과를 수서과와 서무과로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수서과장은 사서관, 서무과장은 행정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고

록 규정을 개정하라.

2. 다양한 자료의 구비 문제 (대자보 88.3.16. ; 88.3.17. 참조)
그저 책에만 매달려 있는 도서관 당사자들은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깨어나라. 다양한 자료들 즉, 시청각 자료, 구증자료, 마이크로 자료, 문서자료, 사진자료, 팜플렛자료 등을 구비하여 학문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3. 자료의 확대 개방 문제 (대자보 88.3.16. ; 88.3.17. 참조)
소위 '금서', '불온 서적'을 완전 개방하라. 나아가, 이들 자료들을 따로 봉사하는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라.
4. 잡지 결호 보충 문제 (대자보 88.3.21. ; 3.22. ; 3.23. 참조)
잡지 결호를 즉시 보충하라. 또한, 신간 잡지를 신속하게 구입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5. 잡지 수집 기준 문제 (대자보 88.3.21. ; 3.22. ; 3.23. 참조)
잡지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마구잡이식 수집을 계속할 생각인가? 잡지 수집의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라.
6. 참고 자료 보강 대책 문제 (대자보 88.3.24. ; 88.3.25. 참조)
유명무실한 참고 자료실의 빈약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7. 고전 자료실 설치 운영 문제 (대자보 88.3.28 ; 3.29. ; 3.30. 참조)
3층 서고에 송장 처리하듯 밀쳐 둔 고서들의 이용, 봉사 방안을 제시하라. 무엇보다 고전 자료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고전 자료 전문사서도 확보하여야 한다. 향후의 고전 자료 수집, 조직, 보존, 이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라.
8. 자료 재분류, 목록 정비 문제 (대자보 88.5.27. ; 88.5.30. 참조)
엉망진창인 자료 분류 상태를 재정비하고, 목록 정비도 다시하라.
9. 장서 점검 문제 (대자보 88.3.16. ; 88.3.17.

참조)

장서 점검을 실시하라. 허울 좋은 40만권만 선전하지 말고 진짜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장서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공개하라. 분실된 자료, 부당하게 유출된 자료를 언제까지 숨길 셈인가?

이상이 우리의 요구사항이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부산대 도서관 속에 온존해 있다는 사실이 일면 놀랍고, 일면 개탄스럽다. 그런데도 현장의 사서들은 '도서관 개혁운동'을 본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사서로서의 전문적인 교육도 받은 바 거의 없고, 게다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며, 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의 무지와 태만에 대한 각성조차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능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라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이 정도면 최고'라고 자만하며 5년, 10년, 20년씩 몸담아 온 직장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선배로서의 자세가 마땅하거늘 잘못의 은폐에만 여념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도서관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즉, 양질의 장서

개발, 양질의 자료조직, 양질의 봉사,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무지와 태만으로 인해 사서로서의 능력도, 사서로서의 봉사정신도 그들에게 아득히 사라졌고 도서관이 단지 생존을 위한 직장으로서는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 도서관을 평생 일터로 생각하며 전공하는 우리로서는 사경에 처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 삶과 유리된 학문이라는 것은 한낱 호사가의 사치에 불과하다. 굶은 상처는 고름을 짜고 치료를 해야 한다. 한사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말미암았으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심사숙고 하여 답변한다. 무지하고 태만한 사서에 있다고. 그리하여 도서관의 4요소인 시설, 자료, 사람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 가운데 '사람' 부분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장은 피가 나고 아프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학교당국에 단호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동안 놀라운 지지와 성원을 보여준 2만 효원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우리는 학우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 우리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통일염원 44년 6월 3일 총학생회인권복지위원회
사회대학생회인권복지위원회 도서관학회

<자료 4> 도서관 발전위원회가 생산한 문서의 한 보기

평교수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대학당국과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고사항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대학당국에 이미 제시된 바 있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도서관학과 학생회와 대학당국 간의 합의사항

(안)"을 세밀하게 읽고 검토 하였다. 이에 도서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대학의 기능이 지식을 생산 전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연구와 교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대학목적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도서관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지금까지 대학당국이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으며,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당사자도 대학 목적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 없이 무사인일에 빠져있었던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학생들의 원안대로 받아들여져서 실천되는 것이 대학도서관 자체 뿐 아니라 대학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조건들이 현실 속에서 원안대로 실천되는 데는 제약조건들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의 원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제약조건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권고안이 대학당국자의 결심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이 권고안이 학생들의 도서관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새 도서관 건축문제

1986년에 성안된 「대학종합발전계획(1987-1991)」의 이곳 저곳에는(가령, pp.77-78, p.88, p.107, p.111, p.138, pp.184-185, p.197, pp.203-205, pp.216-218) 새 도서관 건축에 대한 의지가 매우 피상적이며 미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책자의 맨 앞쪽 “발전계획 조감도”에는 계획 속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

우리는 대학당국이 “발전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 수정안 속에서 한강이남에서 단독 도서관 건물로는 가장 훌륭한(반드시 최대일 필요는 없다.)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새 도서관 건물에의 의지를 88년도 중에 성안되어 요청하게 될 89년도 대학예산안에 명시하되 89년도 대학사업 가운데 최우선적 사업

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합의사항(안)”의 “건물”항에 제시된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대체로 원안대로 수용되기를 권고한다.

2. 별관제 독서시설 문제

훌륭한 독서시설과 시험준비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대학당국은 이에 대한 다음의 대안들을 고려 할 것을 권고한다.

대안 1: 사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전제 아래, 현 사회관을 독서실로 꾸며 개방함으로써 지금의 중앙도서관과 사회관 지역을 “도서관 단지화”한다. 현도서관 건물과 사회관 건물은 구름다리로서 통합될 수 있다.

대안 2: 지금의 문창회관 용도가 새 학생회관으로 옮겨간다는 전제 아래, 현문창회관을 수리 개조하여 독서시설로 제공한다.

대안 3: 지금의 음악관(C7)의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음악관의 내부를 수리 개조하여 독서시설로 꾸며 제공한다.

3. 전면 개가제 문제

전면 개가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는 개가제로 설계된 새 도서관의 증축과 별관제 독서시설의 마련이 전제가 된다.

새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이라도 별관제 독서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현 도서관 건물의 범위 내에서 약 15만권 내지 20만권을 개가제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동시에 전면 개가제로 나아가는 훈련을 도서관측과 학생들이 다 같이 쌓아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이 실험적인 개가제 속에 포함되는 장서는 교양, 교재자료 뿐 아니라 모든 주제에 걸친 전공학술자료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합의사항(안)”에 제시된 나머지 요구사항 2, 3, 4, 5, 6은 대체로 원안대로 수용될 것을 권고한다.

4. 사람 문제

현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가운데 대학당국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인정되므로 즉시 사임할 것을 권고한다. 새로운 관장은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식, 경험과 능력이 있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할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 그밖의 요구 사항 2, 3, 4, 5, 6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견해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1987. 9. 17

부산대학교 도서관발전위원회

<자료 5> 대학본부가 생산한 문서의 한 보기

부산대학교 도서관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자료
(부산대학교, 1988. 11. 20)

[답변자료를 내면서]

목 차

A. 사람

- 1. 도서관장 문제3
- 2. 부관장제 폐지 문제3
- 3. 과장교류 문제4
- 4. 평사서 자질 향상문제5
- 5. 임시직 처리 문제6

B. 건물, 시설

- 1. 도서관 신축문제7
- 2. 휴게실 설치문제8
- 3. 부족열람실 확보 문제8
- 4. 서남쪽 출입구 앞의 화단 재조성문제9
- 5. 공중전화 설치문제9

C. 서비스 시스템

- 1. 양서 개가제 문제10
- 2. 개관, 대출시간 연장문제10
- 3. 도서관 전산화 문제10

D. 자료

- 1. 장서개발정책문제11
- 2. 다양한 자료의 구비문제12

- 3. 공산권 관계 자료의 확대 개방문제13
- 4. 잡지 결호보충문제13
- 5. 잡지 수집기준문제14
- 6. 참고자료 보강대책문제14
- 7. 고전자료실 설치운영문제15
- 8. 자료 재분류, 목록정비문제15
- 9. 장서점검문제16

답변자료를 내면서

대학당국은 총학 인권복지위원회, 사회대 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 도서관학과 학생회가 87년 9월 이래 지금까지 3학기에 걸쳐 대학 도서관의 여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위의 세 학생단체가 이 기간동안에 대학도서관의 직원, 건물, 시설, 자료, 서비스 시스템의 여러 국면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준 것은 이 대학의 도서관 발전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이토록 긴 기간동안 아무런 사심도 없이 자신을 위한 공부와 취미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을 가해준 사실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 학생들의 가슴속에 이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과 깨끗한 정열이

없었다면 그와같은 작업은 아마도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짐작한다. 앞으로 대학당국과 도서관 구성원들은 대학도서관이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정보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여 둔다.

아울러 대학 당국은 학생들이 “이후의 도서관 개혁의 주체는 도서관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여 준 것을 환영한다. 대학당국과 도서관의 구성

원들은 이제부터 스스로 개혁의 임무를 떠맡음으로써 학생들은 “개혁자”의 짐을 벗고 관심있는 이용자로만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분발할 것이다. 학생들은 앞으로 도서관이 자기혁신을 성취시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도서관 자체의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도서관이 연 2회 발행하게 될『도서관 소식』에 모두 실어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할 것임을 밝혀둔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자료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 6. 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A. 사람	<p>1. 도서관장 문제(대자보 88, 5.26 : 88, 6. 1 참조)</p> <p>현 도서관장은 우리들의 개혁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추진할 전문적 능력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현 관장이 도서관 현장을 지도,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직교수가 아닌 도서관장으로 채용된 전문직(도서관법 시행령상의 1급 정사서)으로 새 관장을 임명하라! ‘국립학교 설치령’ 제11조 4항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p> <p>* 현재의 관장조항(국립학교 설치령 제11조 4항)을 “교수 또는 전문직(1급 정사서)으로 보한다”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요구하는 총장명의의 공한을 문교부 장관에게 즉시 발송하라. (88. 10. 25자 유인물)</p>	<p>*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과 병행하는 도서관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p> <p>* 학교는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고학력 간부 사서의 영입과 기존 간부 사서들의 자질향상(예 :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p> <p>* 대학 도서관장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대학은 다른 국립대학과 문교부와 협력한다.</p>	
	<p>2. 부관장제 폐지(88, 5.26 : 6. 1)</p> <p>우리는 우리의 ‘도서관 개혁운동’ 정신에 위배되는 기만적 ‘부관장제’를 거부한다. 즉각 폐지하라</p>	<p>* 현재와 같이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수로 보하는 부관장제는 관장직의 전문화와 동시에 그 존재문제를 검토한다.</p>	
	<p>3. 과장 교류문제(88, 5.26 : 6. 1)</p> <p>‘과장교류문제’에 있어서 학교당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각 교체하라.</p> <p>* 공무원 교류조항(국가공무원 임용령 제 44조)에 의거하여 나머지 1개 부서의 과장을 늦어도 이번학기 말까지 교류하여 줄 것을</p>	<p>* 장기근무 전문직 과장의 교류문제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계속 노력중이다.</p>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 6. 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p>요청한다. (88. 10. 25자 유인물)</p> <p>4. 평사서 자질 향상 문제(88. 5. 26 : 88. 6. 1) '89년 10월까지 임시직을 제외한 학사정사서 19명 이상(경북대 수준) 확보약속의 이행을 위한 납득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라. 4년제 학사정사서 채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졸하고 궁색하게 연출되는 '숫자채우기 놀음'을 당장 중지하라.</p> <p>* '대학의 처리 내용'에 나타난 기존 사서들의 교육문제는 우리의 주장과는 그 차원을 달리 한다고 본다. 87년 10월의 총장 공고문에 명시된대로 89년 말까지 학사정사서 19명(경북대 수준)을 확보하라.</p> <p>또한 이와는 별도로 사서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2-3개의 신규임용 T/O 확보와 기존 사서 교육 문제를 추진하라. (88. 10. 25자 유인물)</p>	<p>* 학사정사서 신규임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p> <p>* 기존사서들의 자질을 학사정사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광주경상대학을 통한 학사정사서 양성 - '사서업무연구회'를 통한 평사서의 자질향상 - 학회 세미나등의 참석을 통한 자질향상</p> <p>* 일반직 학사정사서 확보현황과 충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재 : 12명(도서관학과 졸 8명, 일반학과졸 4명) 89 : 1명(광주 경상대 졸업예정) 90 : 1명(광주 경상대 졸업예정) 91 : 7명(광주 경상대 졸업예정) 93 : 2명(광주 경상대 졸업예정) 이 기간동안 매년 약간명의 사서 T/O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89년도 사서 T/O 14명을 문교부에 요청하였음.</p>	
	<p>5. 임시직 처리문제(87. 9. 7) 우리는 임시직 채용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청탁인사의 관행을 단호히 배격한다. 임시직들의 신분은 대학이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도서관 아닌 타 부서로 이동시켜라.</p> <p>* 우리의 주장에 대한 대학측의 답변은 동문서답이다. 도서관에 관한한 임시직 채용은 기존의 임시직 사서들은 교내 타부서의 결원이 생기는 즉시 이동되어야 한다. (88. 10. 25자 유인물)</p>	<p>* 사서직의 신규임용은 유자격자의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p> <p>* 임시직으로 하여금 연공에 따라 본직에 오르게 하던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을 지양한다.</p>	
B. 건물, 시설	<p>1. 도서관 신축문제(88. 5. 26 : 88. 6. 1) 학교당국이 5월31일 제시한 신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새로운 신축사업계획을 세우라. 학교당국은 구시대의 '규정'을 앞세우고 2만 호원인의 숨통을 틀어막을 셈인가?</p>	<p>* 그동안 문교부, 경제기획원, 당정협의를 거친 본교의 '89년도 예산안(도서관 신축예산 포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새도서관 건물의 착공은 '89년 중에 한다.</p>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6.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p>* 87년 10월 총장 공고문에서 약속한 '최우선 신규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밝히라. 예산 규모, 연차 계획 그밖의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2,000년대를 예측하여, 늘어난 장서규모와 지금 당장 필요한 고전 자료실, Microform 자료실등의 신설을 고려할 때 눈앞의 열람석 부족만을 내세워 신축 사업계획을 세우려는 대학 당국의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우선 신규 사업'이 고작 이 정도인지 의문스럽다. 대학 당국이 설치한 '도서관 발전 위원회'의 안을 대폭 수용하여 즉각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 공개하라. 그렇지 않은 또다른 눈가람식 '늘음'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88.10.25자 유인물)</p>	<p>* 신축건물은 도서관 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3-5년에 걸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 설계와 시공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한다.</p>	
	<p>2. 휴게실 설치문제 (88. 3. 14 : 88. 3. 31) 기존 1층 휴게실은 도서관 당국자들의 무지와 태만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3층과 4층에 따로 휴게실을 설치하라.</p>	<p>* 4층 옥상에 제2 휴게실을 만들려고 했으나 건축공학상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 현재 다른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p>	
	<p>3. 부족열람실 확보 문제 (88. 3. 31) 절대 부족한 열람석의 확보 계획을 제시하라.</p>	<p>* 새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면 열람석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때까지는 각 단과대학 과제도서실과 교실개방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편의에 응한다.</p>	
	<p>4. 서남쪽 출입구 앞의 화단 재조성문제 (88. 3. 15) 서남쪽 출입구 앞의 화단 조성을 다시 하라. 모든 이용자들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p>	<p>* 화단조성에 있어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함이 보인다. 그러나 재조성이 불가피할 만큼 잘못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재조성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p>	
	<p>5. 공중전화 설치문제 (88. 3. 15) 전화 한통화를 위해 4층에서 1층을 오가야 하는 고층을 계속 방지하고 있을 셈인가? 도대체 도서관 당사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p>	<p>* 도서관 안에, 그것도 층마다 전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도서관의 분위기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본다. 그 대신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바깥 공터에 전화기 2대를</p>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 6. 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p>인가?</p> <p>각층마다 2, 3대의 공중전화를 즉각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돌보라.</p> <p>* 도서관 내의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많고 무조건 '분위기 유지' 운운하며 일관하는 대학 당국의 나태함에 다시 한번 실망을 금치 못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적어도 3층(예컨대, 3층 서고앞 등) 정도에라도 공중전화가 설치되어야 한다. (88. 10. 25자 유인물)</p>	<p>증설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에 요청중에 있다.</p> <p>* 관내 전화기 설치 문제는 이용자들의 여론과 소음정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p>	
C. 서비스 시스템	<p>1. 양서 개가제 문제 (87. 9. 3) 동서는 개가하고도 양서는 왜 서고에 숨겨두는가?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하는 피동적인 자세는 왜 버리지 못하는가? 양서도 전면 개가제로 바꾸라.</p> <p>2. 개관, 대출시간 연장문제 (89. 9. 7) 자료대출시간을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하라. 도서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다른 대학들의 본을 따르라.)</p>	<p>* 당분간 '88년 3월부터 운영중인 동서 개가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한다.</p> <p>* 양서개가제는 88년 중에 계획을 세워 '89년중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 88. 9. 1부터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과학분관자료실을 평일은 09:00-19:00(중전 09:30-17:00) 토요일은 09:00-12:00(중전 09:30-12:00)로 연장봉사를 하고 있다</p> <p>* 모든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연장봉사는 예산과 인원의 확보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한다.</p>	
	<p>3. 도서관 전산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공개하라.</p>	<p>* 도서관 전산화 계획은 전공 교수에게 연구의뢰하여 수서 목록 대출 참고 정간물 과정을 포함하는 Total System이 되도록 하며, 동시에 본교 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이 전국 도서관 전산네트웍의 한 부분이 될 것을 고려해 넣도록 한다.</p>	
D. 자료	<p>1. 장서개발정책문제 (88. 3. 16: 88. 3. 17) 양질의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라. 도서관 자료는 그저 마구잡이로 긁어모으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다. 장서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지금의 수서과를 수서과와 서무과로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 수서과장은 사서관, 서무과장은 행정서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p> <p>* 현재 행정서무관인 수서 과장직을 사서관으</p>	<p>* 수서과(과장은 사서관)와 서무과(과장은 행정서무관)를 분리운영하거나 수서과를 현재 대로 두고 그 과장직에 행정서무관 대신 사서관을 보할 수 있도록 대학이 문교부에 건의한다.</p> <p>* 부관장의 전문적인 지도 밑에서 도서관의 수서실을 이번 학기중에 확대 개편하여 사서들로 하여금 인문과학담당, 사회과학담당, 자연과학담당 및 공학담당으로 영역별 전문성</p>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6.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p>로 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장 명의의 공한을 즉시 문교부에 발송하여, 이를 요청해 주기 바란다. (88.10.25자 유인물)</p>	<p>을 확보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교양, 교재, 학술자료의 개발, 참고자료와 잡지자료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전공교수들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요구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한다.</p> <p>* 자료선정도구 8종을 89학년도중에 새로이 비치한다.</p>	
	<p>2. 다양한 자료의 구비문제 (88. 3.16 : 88. 3. 17)</p> <p>그저 책에만 매달려 있는 도서관 당사자들은 시대 착오적 망상에서 깨어나라. 다양한 자료들 즉, 시청각 자료, 구증자료, 마이크로 자료, 문서자료, 사진자료, 팸플렛자료 등을 구비하여 학문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p> <p>* 학문·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려면 우선 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89년 중으로 Microfilm reader/printer와 Microfiche reader/printer를 우선 구입,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88.10.25자 유인물)</p>	<p>* 이번 학기중 수사기능이 보강되는대로 비전통자료(non-conventional materials)의 개발에 착수한다.</p> <p>* microfilm-microfiche reader/printer의 구입은 '89학년도에 추진한다.</p> <p>* 9월 1일부터 Dialog와 Dialcom 가동운영중이다.</p>	
	<p>3. 자료의 확대 개방문제 (88. 3.16 : 88. 3.17)</p> <p>소위 '금서', '불온서적'을 완전 개방하라. 이들 자료들을 따로 봉사하는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라.</p> <p>* 현재 통일문제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공산권 관계자료를 모두 도서관으로 이관시켜 이번 학기 말까지 그 규모를 공개하고 정리를 완료하여 89년 중으로 이들 자료를 따로 봉사하는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라. (88.10.25자 유인물)</p>	<p>* 공산권 관계 특수자료는 개정된 특수자료 열람지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 열람방법은 현재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한다.</p>	
	<p>4. 잡지결호보충문제 (88. 3.21 : 3.22 : 3.23)</p> <p>잡지 결호를 즉시 보충하라. 또한, 시간잡지를 신속하게 구입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p> <p>* 이번 학기 말까지 잡지 결호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하고 그 보충계획을 밝혀라. (88.10.25자 유인물)</p>	<p>* 1차적으로 결호의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며, 다음은 연차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결호보충사업을 편다. 결호보충은 80년대 간행물에 중점을 둔다.</p> <p>* 도서관은 결호 파악방법과 보충방법을 88년 11월 말까지 성안하여 발표하며 결호의 실태는 89학년도 말까지 파악하여 공개한다.</p>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 6. 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5. 잡지 수집기준문제 (88. 3. 21 : 3. 22 : 3. 23) 잡지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마구 잡이식 수집을 계속할 생각인가. 잡지 수집의 엄정한 기준을 제시하라.	* 현재 전공학과와 협조하여 수집잡지 타이틀의 타당성 조사를 구입 외국잡지에 한해서 끝마쳤다. * 잡지 타이틀의 타당성 검토는 계속 사업으로 실시한다.	
	6. 참고자료 보강대책문제 (88. 3. 24 : 3. 25) 유명무실한 참고자료실의 빈약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이번학기중 수서기능이 보강되면 참고실과 협조하여 참고조사자료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한다. 도서관은 참고 조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고실을 지금의 제 1열람실로 옮길 계획을 성안중에 있다. * 89학년도부터 서지자료실을 따로 운영함으로써, 색인, 목록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한다. 89학년도 중에 12종의 색인, 초록자료를 새로 개발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신설의 서지자료실은 지금의 참고실 자리에 논문자료실과 병치할 계획이다.	
	7. 고전자료실 설치운영문제 (88. 3. 28 : 3. 29 : 3. 30) 3층 서고에 송장 처리하듯 밀쳐 둔 고서들의 이용, 봉사방안을 제시하라. 무엇보다 고전자료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고전자료전문사서도 확보하여야 한다. 향후의 고전자료수집, 조직, 보존,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라. * 이번 학기 말까지 소장하고 있는 고전자료의 규모, 정리상태를 공개하고 그 개발 방안을 세우라. 그리하여 89년 중으로 전문사서를 확보하여 고전자료실을 설치, 운영하라. (88. 10. 25자 유인물)	* 89년중 고전적 문서자료를 전담할 요원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수집, 조직, 보존, 이용봉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목록 사업은 '88년 여름방학동안에 완료되었다. 본과의 고서소장목록은 국립대학 고서종합목록의 일부로 곧 간행 예정이다.	
	8. 자료 재분류, 목록정비문제 (88. 5. 27 : 88. 5. 30) 영망진창인 자료 분류상태를 재정비하고, 목록 정비도 다시하라.	* 고객용 목록 정비를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동서목록 가운데 서명목록의 정비는 '88년 여름방학동안 완료하였다. * 자료조직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장서 150만권(서기 2,000년)규모에 대한 대비책은 전공교수에게 연구과제를 주어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 장서점검문제 (88. 3. 16 : 88. 3. 17)	* 장서 규모(47만권)에 비추어, 또한 도서관	

구 분	학생들의 제안내용(대자보 88.6.3)	대학의 처리내용	비 고
	<p>장서점검을 실시하라. 허울 좋은 40만권만 선전하지 말고, 진짜 몇권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한 장서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공개하라.</p> <p>분실된 자료, 부당하게 유출된 자료를 언제까지 숨길 셈인가?</p> <p>* 목록은 있으나 서가에는 없는 자료, 분류번호가 틀린 자료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토로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장서점검'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88년 11월말까지 장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겨울 방학 동안에 장서점검을 완료하고 89학년 개강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p> <p>공개결과 유실자료에 대한 책임은 역대 총장, 도서관장에 있지만,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첫 장서점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 총장, 도서관장, 부관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p> <p>그에 대한 대학당국의 의지도 천명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88. 10. 25자 유인물)</p>	<p>고유업무를 계속해야 하며 이용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는 부담때문에 한꺼번에 점검을 완료하기는 어렵다. 도서관은 88년 11월 말까지 장서점검을 위한 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점검실시는 자료별(KDCP, KDC, DDC, 고서, 비도서자료)로 단계적으로 한다.</p>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 1. 전화신청가능
-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군읍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회원	10,000원	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의 직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